

교회소식

< 담임목사 방송설교 >

- CBS TV(채널 68) 월 오후 2:00 ~ 2:30
- 극동 방송(FM 93.3MHz) 수 오후 5:30 ~ 6:00
- CTS TV방송설교(채널97-1) 목 오후 1:00 ~ 1:30
- CBS 라디오(FM 91.7MHz) 금 오후 12:30 ~ 1:00



[모임]

1. 정기당회 - 오늘 주일3부 예배 후 / 당회실

[알림]

1.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예배안내

- * 새벽예배와 수요일부예배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 수요일부예배, 목요일영성기도회는 쉽니다.
- * 추석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는 본당 로비에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섬기는 분들

◆월요당직 : 조정옥 전도사

담임목사 조상용	원로목사 김주원	시무장로 김덕현	배정만	홍순영	이원명	이대영
부목사 고윤철	오상옥	김종명	송경호	정기조	윤종명	황덕순
전도사 김명순	조정옥	전상순	김수종	임인성	전용주	
교육전도사 정선교(고등)	지서광(중등)	현기훈(초등)	원로장로 이인창	편봉달	정대용	최영일
직원 안성민(유년)	이정아(유치)		안철호			
직원 박연희(사무)	김현철(관리)		은퇴장로 김영한	장순석	김기성	권소열
어린이집 주경애(원장)	김경희	권영은	박선희	김효진		송은규

교회주소 - 34532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748번길 40 (가양동) FAX 632-0281
www.jungbu.or.kr / 사무실 622-9991,2 / 큰숲어린이집 622-9995 / 카페(필그림) 625-9991

Since 1958. 09. 15

2020. 9. 27 (NO. 62-39)



우리의 비전

위대한 교회
영광스런 교회를
보게 하소서!

4대 사명

-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
- 성도를 제자삼는 교회
-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8대 사역

1. 예배 사역
2. 목장 사역
3. 가정 사역
4. 기도 사역
5. 제자 사역
6. 미래 사역
7. 복지 사역
8. 전도 사역

도심 속 하나님의 나라
세종중부교회
(담임목사 하우진)
2018. 7. 7 설립

세종시 보람동
금강베네치아 5층
010-7770-8291

주 일 예 배

2부 / 오전 9:00

3부 / 오전 11:00

* 입례송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 신앙고백	사도신경
회중찬양	마라나타
참회기도	다같이
대표기도	임인성 장로(2부) / 전용주 장로(3부)
찬양	예루살렘(2부) / 할렐루야(3부)
성경	고후 13:13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할 때!** 조상용 담임목사

헌금	15장
광고	인도자
* 공동체고백	사명선언문
* 폐회송	우릴 사용하소서
축도	조상용 담임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안내

주일4부 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주일오후 성경읽기예배	오후 4:00 (본당)	수요일예배	1부/오전10:00(본당) 2부/저녁7:30(중예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양: 드림 찬양단 * 기도: 김가람 형제 * 설교: 김종명 목사 * 성경: 단 2:1-18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양: 주찬양 찬양단 * 기도: 박노태 집사 * 인도: 오상옥 목사 * 성경: 막 9-12장 “수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앙고백: 사도신경 * 기도: 김영희 집사(1부) * 설교: 고윤설 목사 * 성경: 사 60:21-22 “하나님의 백성”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당)	목요영성기도회	저녁 8:00 (본당)		
민수기 - 담당 교역자 -		- 명절 연휴로 쉽니다.			

다음주 봉사안내

주일오전	1 부		안내위원	4 여전도회		
	2 부	전용주 장로		식당봉사	금 주	
	3 부	배정만 장로			내 주	
주일새벽	금 주		주차위원		나승문 김상복 김중현 김태순 박노태 박대수 이길천 이종규 임춘수	
	내 주			차량운행	2호/ 이본구 집사 010-8281-3779	
주일오후	내 주	구회선 집사	3호/ 김동윤 집사 010-6804-5574			
			권소열 장로 010-8070-3533			
수요일예배	1 부	김정식 집사	4호/ 유창웅 집사 010-6407-8515			
	2 부	김옥진 집사	5호/ 이윤성 집사 010-9033-5338			
			6호/ 채기범 집사 010-5579-9103			
			임인성 장로 010-9577-9500			

예배시간 안내

주 일	1부 예배	오전 7:00	유아부	오전 11:00	수 목	1부 예배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9:00	유치부			2부 예배	저녁 7:30
	3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			목요영성기도회	저녁 8:00
	4부 예배	오후 2:00	초등부				
	베데스다	오전 9:00	중등부	오전 9:00	매일	새벽기도회	새벽 5:00
	오후예배	오후 4:00	고등부				
			청년회	오후 2:00			

기도 게시판

365일 릴레이 기도 담당

월 (28일)	최영희
화 (29일)	송정숙
수 (30일)	심윤중
목 (1일)	조상용 김혜경 최영일 순정숙 이영학 안중근 국은희
금 (2일)	임현성 오상옥
토 (3일)	이연옥 이종옥
주일 (4일)	전용주 권연옥 임영숙 유창웅 김정식 권상희 정영자 김명순

※ 기도담당자는 하루 한 끼 금식하고 한 시간 이상 집중 기도해 주세요!

기도제목

1. 위대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하소서! (마 16:18)
2.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9:20)
3. 365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14)
4.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요 17:22)
5. 도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 5:16)

중보기도사역

요일	기도 내용	담 당	시 간	장 소
월	교회와 개인을 위해	한혜숙 권사	오전 11시	기 도 실
화	교회, 선교, 중보, 개인을 위해	이영숙 권사	오전 10~12시	기 도 실
수	나라와 민족, 교육 부서를 위해	심윤중 권사	오전 11~12시	기 도 실
목	성령의 능력과 치유, 회복을 위해	목요영성기도회	자녀 8시~10시	본 당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이종옥 권사	밤 12시~4시	한 나 방
금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이성희 권사	오후 2~3시	기 도 실
주일	목사님과 주일 예배를 위해	홍선덕 권사	오전 10~11시	기 도 실
119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119 문자	문자 전송 시	처소에서

사명선언문

대전중부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정을 치유하며,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여,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위대하고 영광스런 주님의 교회가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게시판

주간 성경읽기

날짜	28일(주일)	29일(월)	30일(화)	1일(수)	2일(목)	3일(금)	4일(토)
성경	욥1-욥2	욥3-미1	미2-4	미5-나2	나3-합2	합3-습2	습3-학2

♠ 꽃꽂이

★ 내주: 김복실 권사

모임안내

새가족 성경공부

구분	시간	담당자	기간	장소
새가족반	2, 3부 예배 후	오상옥 목사	4주	당회실

평신도 신앙훈련

구 분	내 용		기간	사 역 목 표	담 당 자
신앙성장 과 정	학습·세례 교육		3주	신 앙 교 육 강 화	담 당 자
	교 리 생 활 공 부		1년	1 학 기 : 교 리 편 2 학 기 : 생 활 편	담 임 목 사
	가 정 사 역 학 교		13주	행복한 가정 만들기	김 혜 경 사 모
	제 자	제 자 반	1년	그리스도의 제자양육	교 구 목 사
	훈 련	사역반	1년	사 역 자 양 육	담 임 목 사
	목 자 훈 련		매주	목 자 훈 련	각 교구 교역자
	양 육 1 단 계		5주	공 동 체 를 통 한 하나님 경험하기	담 당 자
	회 복 수 양 회		1박2일	내 적 치 유	담 당 자
	양 육 2 단 계		8주	성숙한 성도의 삶 경 험 하 기	담 임 목 사
	증 보 기 도 학 교		6주	기도 헌신자 훈련	담 당 자
L M T C	평신도 선교훈련		24주	단기선교 준비 과정	담 당 자
청춘 대학	다양한 교육활동		4년	노년의 행복한 삶	조정옥전도사
아기 학교	주간 아기 교육		12주	신앙적인 전인교육	김명순전도사
목요 전도	전도훈련·지역전도		매주	지 역 복 음 화	고 윤 설 목 사

찬양대

구분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주일새벽	시온	이종운	김예원
주일 1부			
주일 2부	예루살렘	이규인	피/임지희 오/문정애
주일 3부	할렐루야	장지이	피/김영미 오/임형선

구분	반주자
주중새벽	이성희 김경희
주일오후	강주연
수요 1부	문정애
수요 2부	김경희

10월 행사 안내

--	--

김도형 협력선교사(태국)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에 저희 가정은 어떠한 말씀으로 성도님들께 안부를 전해야 할지 항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조금은 안정이 되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듯하나,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확진자들의 소식에 항상 기도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가운데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태국은 지난 6월 3,100여명의 확진자가 있고, 야간 통행금지, 개학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통제를 국가적으로 심하게 하고 있어 확산이 되는 부분을 조금은 막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체온을 측정하며,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 함께 나누던 식사도 할 수 없지만, 미리 준비한 음식을 도시락으로 챙겨 가정마다 부족하지 않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도록 감사가 나왔습니다.

기도제목

1. 코로나로부터 회복되어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도록
2.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 지도록
3. 계획된 안식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준비되도록
4. 가족들의 건강과 하는 모든 사역위에

선교 및 돕는 기관

♣ 파송선교사

- 김경배, 이명국(재현, 은희, 상희) / 태국 · 싱가포르
- 이종현 / 국내 몽골이주인 사역(부천)
- 윤명호, 최수옥(인아, 기웅) / 태국
- 조나단, 김은샘(예지, 혜성, 하라, 이안) / 인도네시아
- 버여, 총통체책 / 몽골
- 박춘국, 김은영(주현, 하현, 성현) / 일본
- 안덕준, 이안나(하민, 하진, 하온) / 베트남
- 김현숙 / 태국

♣ 협력선교사 및 선교기관

- 천강민 / 몽골 · 장석현 / 태국 · 이수현 / 필리핀
- 김재정 / 태국 · 김도형 / 태국 · 장천득 / 캐나다
- 임태호 / 태국 · 박정선 / 태국 · 오세연 / 남아공
- 이성율 / 키르기스스탄 · 총회세계선교회(GMS)
- 싼띠팍선교회(SMI) · 일본아가페선교회(AMJ)

♣ 후원교회 및 기관

- 가야곡중부교회
- 옥천각계교회
- 대전시기독교연합회
- 대전성시화운동본부
- 두란노아버지학교
- 군선교연합회
- 주바라기선교회
- 대전기독교방송
- 대전극동방송
- 대전CTS방송
- 기독교타임즈
- 총신대학교
- 대전신학교
- 동대전중학교
- 가양중학교
- 명석고등학교
- 내륙흥 노인회
- 가양2동 노인회
- 신도 노인회
- 더퍼리 노인회
- 비래1,2 노인회
- 내봉 남,녀 노인회

지난 주 말씀 요약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마25:31-40)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우리가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데 그것은 사랑의 요약 밖에 없다. 요한복음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은 "너희가 모여 예배 하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표지다.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가 없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무엇을 근거로 심판하시는 지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있을 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느냐?"하는 것이다.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함께 배워보자.

1. 사랑의 실천은 참된 신자의 증거입니다.

(35-36절)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자고 말은 하지만, 실제 실천하지는 않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러나 참 신자는 행동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오른 편에 세워주셨다. 이것은 신자들이 반드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 믿었다고 큰 소리 치면서 정작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의 믿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로 사랑 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줄 알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소홀히 여겼다. 참된 믿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이다.

2.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언제 당신을 돌보았습니까?"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우리는 단지 소외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위해 봉사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한 봉사라고 인정해 주신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봉사할 때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려운 이웃들을 만날 때,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특징은 말로만하는 사랑이 아니다. 행함으로만 하는 사랑도 아니다.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다(요일3:18). "진실함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3. 사랑의 실천은 상급이 보장된 일입니다.

(34절)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은 이들에게 천국의 상급을 약속하셨다. 이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의 삶 그 자체였다! 예수님은 평소 비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그리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며 돌아 보셨다. 이렇게 사셨기에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자신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삶이 변화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면서 사랑이 메말라가기 시작했다. 그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며 교회가 탄생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공동체였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다. 교회가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이 세상은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우리가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한다.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2일(금)	찬 38장	민 14:26-38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p>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원망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방 민족에게 사로 잡힐 것을 염려하던 어린 자녀들은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어린 자녀들만 가나안 입성을 허락받았습니다(30~31절).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에서 죄에 대한 대가와 함께, 사랑과 긍휼이 무엇인지 보여 주십니다. 불순종은 죄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했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녀들에게까지 묻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방패로 무장해야(창조 엡 6:16) 합니다. 불평불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p>			
3일(토)	찬 435장	민 14:39-45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p>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우리가 죄를 지었다”며,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나섭니다(39~40절). 하지만 이미 훗날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을 막아하셨습니다(42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간곡한 만류를 무시하고, 여호와와의 언약궤와 모세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진영에 머문 상황에서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산꼭대기를 향해 올라갑니다(44절). 이는 진정으로 죄를 회개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올라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들의 생각과 고집대로 행한 것입니다. 결국 대패해 호르마까지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45절). 만일 모세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이렇게 참당한 일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한 채 자기 확신에 차서 말씀을 거스르면 슬픔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내 삶의 최선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p>			
4일(주일)	찬 299장	민 15:1-16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p>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서 행해야 할 제사 규례를 다시금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는 기름을 섞은 곡물과 포도주를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어린양을 바칠 때는 곡물 10분의 1에바와 기름 4분의 1한 및 포도주 4분의 1한을, 숫양은 곡물 10분의 2에바와 기름 3분의 1한 및 포도주 3분의 1한을 함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수소는 곡물 10분의 3에바와 기름 2분의 1한 및 포도주 2분의 1한을 함께 드리게 하셨습니다(4~10절). 제사의 제물 양이 점점 커지는데, 이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규정을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셨습니다(14~16절). 이는 가나안에 입성한 백성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셨으며, 동시에 이방인까지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물 되심으로 구원받은 나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p>			

향기로운 예물

십 일 조

공종호 구왕성 구회선(박지숙) 권대영 권소열 권영숙 김동윤(이연옥) 김석순 김숙자a(김혜란) 김순희b(이동주) 김연수 김옥단 김용기(정윤옥) 김재원(길준순) 김정순a 김정술(최화단) 김종근(이순옥) 김하은c 나승문 남상천(김선희) 도소재 류순례(김병출) 문정애(김근홍) 박노태(최영란a) 박분선 박숙희 박순자a 박일용(조영희) 백규현(양미숙) 성봉규(이명선,성백술) 송봉우 송순례 송주현 순찬호(이영숙b) 신근욱(이남희) 안성현(김선미a) 오상옥(김진남) 오세종(김윤정b) 오연자 육종권 윤동근(신영순) 윤명심(이상규) 윤상덕(양길용,윤성수) 윤종명(전숙인) 이명국(이용매) 이본구(길준순) 이서경 이수진b 이재숙 이춘자a 이형두 이해정 임춘수(이종란a) 정경희 정윤식(손석남) 조규연(서정순b) 주경애 최국현(이영숙c) 최순임(김미희) 최현순 한인숙 함수경 황경숙 황덕순(김기환) 황명동(이후남) 황양례(김종문)

감사헌금

고윤설(박혜란) 권소열(김순이) 권영숙 권혁주 김다빈 김두경 김미숙 김부치 김신 김영애 김영천(남정혜) 김용기(정윤옥) 김태순 김하은c 김형민(윤혜성) 나승문(남한순) 박명환(김은주) 박분선 박영자 박일용(조영희) 박종보 서기홍(하복임) 성봉규(이명선) 성성식(권금자) 송봉우 신순옥 양명자 오명숙 오상옥(김진남) 오연자 오연희 윤상애 윤수진 윤정옥 윤종명(전숙인) 이경호(송이순) 이덕성 이명숙 이숙자 이영학(김성순) 이은진b 이형두 장은혜 전용주 정상희 정우진 정윤옥 조상용(김혜경) 조성일 최국현(이영숙c) 최영란b 최은지 최정숙 한호정 무명2

선교헌금

곽영옥 구왕성 구회선(박지숙) 권대영(한인숙) 권영숙 길준숙 길준순 김경덕(이수진a) 김근홍(문정애) 김동춘(유덕자) 김복실 김석순 김신 김옥단 김용기(정윤옥) 김재원(길준순) 김정순a 김정술(최화단) 김종근(이순옥b) 나승문 남상천(김선희) 도소재 류순례 박금현 박노태(최영란a) 박민지 박분선 박상규 박숙희 박일용(조영희) 박지월 백규현(양미숙) 서기홍(하복임) 성봉규(이명선) 성성식(권금자) 손석남 송봉우 송순례 송주현 순찬호(이영숙b) 신근욱(이남희,신준영,신원영,박계숙) 안성현(김선미a,안홍준,안홍민,안시윤) 안영세(한혜숙) 오상옥(김진남) 오세종(김윤정b) 오연자 용수만(이명희) 유덕자 육종권 윤동근(신영순) 윤성수 윤인애 윤종명(전숙인) 이래민 이명국(이용매) 이본구 이서경 이신순(서정자) 이재숙 이지영 이춘자a 이형두 이해정 임춘수(이종란a) 정상희 최국현(이영숙c) 최영란b 최진수(서정순a) 최화단 한일민(고은주) 현성주 황경숙 황명동(이후남,황훈) 황미애 황양례(김종문)

교회사랑 천사헌금 김용기(정윤옥)

장학헌금 윤재룡 전용주

온라인 헌금계좌: 131-019-689782 [신협-대전중부교회]

장학금 후원계좌: 301-0072-3936-51 [농협-대전중부교회]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28일(월) 찬 570장 민 13:25-33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꾼들의 공통된 평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라는 점입니다(27절). 하지만 열 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거주민들이 강하고 견고한 성읍을 갖고 있기에 가나안을 칠 수 없다고 악평했습니다(32절).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 네피림으로 과장해서 말했고,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와 같다며 부정적인 자아상과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33절). 그들이 이같이 반응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어려움과 자신들의 연약함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절망적으로 보이는 현실에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선포했습니다(30절). 그는 비록 현실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승리의 믿음 보고(Faith Report)를 할 수 있었습니다(참조 수 14:12).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믿고 내 안에 잠재된 불신앙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에 힘써 승리의 믿음 보고를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9일(화) 찬 445장 민 14:1-10 여호와와 함께하시니라

열 명의 정탐꾼들이 절망적인 보고를 하자, 백성은 부정적인 여론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참된 자유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평불만에 사로잡혔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이 아닌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1~4절). 이에 하나님께 앞서 믿음 보고를 드렸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다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라고 보고했습니다(8절). 물론 그들도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굴하지 않고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담대한 보고를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내가 가진 믿음을 초라하게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두려움을 내려놓고, 약속하신 믿음 보고를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환경에 압도돼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도자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은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30일(수) 찬 314장 민 14:11-19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하나님께서서는 약속을 불신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놓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11~12절).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들의 믿음 없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었습니다. 그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이 백성을 진멸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백성을 죽이는 신이라 말할 것이기에 노여움을 풀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참조 출 32:11~12). 모세는 이번에도 금송아지 사건 때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백성들의 죄악을 사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16절).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긍휼함을 품고 대신 회개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내 주변에도 이런 믿음 없음과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하길 바랍니다.

1일(목) 찬 347장 민 14:20-25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20절). 하지만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21~23절). 그들은 모세의 중보로 목숨은 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땅은 선물받지 못합니다. 반면 갈렙과 그의 자손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평가를 받고, 홍해 길을 따라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24절).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불평했던 대가는 너무나 큰 반전을 낳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야 했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은 그대로 살게 되고, 이스라엘은 광야로 가게 된 것입니다(25절). 물론 광야는 고난이 예상되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 번 주신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도 눈에 보이는 지름길인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그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철저한 순종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